한국무예학회 : 무예연구 2021, 제15권, 제2호(통권 - 제37호), 49 - 71
Korea Society for Martial Arts : Journal of Martial Arts
2021, Vol. 15. No. 2, 49 - 71
https://doi.org/10.51223/kosoma.2021.05.15.2.49-71

사건사고로 본 국내 태권도 경기 규칙사

양현석(선문대학교 교수) · 윤정욱(우석대학교 교수)
· 빙원철(백석대학교 교수)*

국문 초록

광복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제정기, 조성기, 정착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태권도 경기규칙 역사의 사건사고에 흐름 속에서 개정 변화된 부분에 찾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초창기 경기규칙은 무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일격필살의 정신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사망사고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호구가 의무화하는 경기규칙과 경기환경적인 요소에 변화가 있었다. 둘째, 90년대까지 사건사고들은 전부 편파판정에 대한 불만족이고 가해자는 선수부터 코치, 감독, 임원, 학부모까지 다양하였으며 심판폭행까지, 경기규칙의 적용미숙과 판정에 대한 불만족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셋째, 사건사고는 규정 변화의 필요성 및 안전에 대한 규정을 지향하며, 개념별, 기능별, 행위별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겨루기경기규칙은 지금까지 27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진행형으로 수정 중이다.

주제어 : 태권도역사, 태권도경기규칙, 판정불만, 사고

*yhs1888@naver.com

Ⅰ. 서 론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 또는 제정된 질서를 우리는 규칙(規則)이라고 한다. 우리는 규칙 없는 난투극(亂鬪劇)을 싸움이라고 하며, 규칙을 준수하며 심판에 의해 도수공방(徒手公方)의 기량을 발휘하며, 상대를 제압하는 경기기술이 태권도겨루기이다.

겨루기는 생존을 위한 실전상황을 염두에 두고 무도로서 제설정하여 수련 상대를 실제 가격하고 제압하며 경기화 및 스포츠로서 변화한 것이다. 태권도 겨루기의 미시적 관점에서의 형태는 각 도장에서 수련 중 이루어지는 한 번 겨루기, 세 번 겨루기, 약속 겨루기, 맞춰 겨루기, 자유 겨루기, 단체 겨루기가 있다.

도장에서 훈련된 실력을 시(군), 도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초등연맹대회, 전국 중, 고 연맹대회, 전국대학연맹대회, 전국실업연맹대회, 전국단체대항 협회장기대회, 대통령기태권도대회, 각 대학 총장기대회, 국가대표선발대회 등 매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대회가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겨루기대회를 보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올림픽, 장애인올림픽, 유스올림픽, 컨티넨탈유니온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멀티게임, 아시안게임, 세계군인선수권 및 각종 대륙별 대회 및 오픈대회 등 각종대회가 열리는데 이는 지구촌 태권도 인들의 잔치로서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축제의 장이며, 태권도대회의 올림픽은 축제의 최종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구촌 스포츠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근간은 무도 스포츠로 발전한 겨루기 경기규칙의 변천이며, 태권도 경기규칙의 변천에 대한 생각들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연구 해석되었다.

겨루기 경기규칙에 대한 태권도 역사연구는 경기규칙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크게 시대적으로 분류한 강성철 외 4(1997), 최종삼(1997), 강충웅(1985), 신창화(1994), 황건수(2000), 정찬모 외 2 (2000), 한창효

(2000), 양현석(2005), 권철달 외 3(2005), 김기환 외 5(2007)등 많은 학자들이 경기규칙의 규정 변화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경기규칙이 변화되게 된 계기는 태권도 경기 중 일어났던 사건사고들의 문제점들이 돌출되어 이에 대한 보완수정을 거쳤다고 생각된다. 태권도 경기규칙에 대한 변천과정을 나열 순이 아닌 왜? 개정 되었을까? 에 대한 의문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사건사고에 의한 태권도경기규칙에 변천에 대한 연구로 태권도 경기규칙이 처음 제정되어진 1973년 이후부터 2021년 일본 동경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까지 겨루기 경기규칙이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연구이며, 양현석(2005)에 의한 경기규칙제정의 시대구분으로 사건사고를 연구하였는데 첫 번째로 경기규칙의 제정기로서 1962년 최초의 태권도 경기규칙이 제정되던 시기를 기점으로 1972년까지로 국내에서 경기 화 된 시기를 보았으며, 두 번째는 세계태권도연맹이 경기규칙을 조성한 시기로서 국제(세계)대회를 개최하여 태권도경기의 세계화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세계대회에 맞는 경기규칙이 개정된 혼돈기이다. 세 번째는 경기규칙의 정착기로서 1988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올림픽의 기준에 맞는 규칙을 재조정하는 시기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차기 동경올림픽은 가라테와 같은(함께) 올림픽무대에서 무도스포츠로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기회를,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태권도경기가 재미있고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규칙이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관객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재미가 없는 발 펜싱이라는 언론의 비판 속에서, 모두가 공감하며 재밌고, 규칙을 이해하기 쉬운 안전한 스포츠, 공명정대(公明正大)하며, 박진감 넘치는 무도스포츠로 재구성해 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태권도는 1963년 대한체육회의 시범종목을 시점으로 국내·외 대회를 개최하며 경기 시 발생되었던 사건사고들에 의해 변경되어진 경기규칙에 대한 배경에 의문점을 역사적으로 탐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태권도경기사의 올바른 역사 인식 및 사건사고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국내 경기규칙의 발전은 올림픽 종목으로의 지속적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며, 겨루기 경기 규칙 연구의 부재는 품새 및 시범공연 종목 경기규칙 확립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태권도가 올림픽 스포츠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이론적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건, 사고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한 연구는 올림픽 무도 스포츠로서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Ⅱ. 태권도 사건사고

1. 경기규칙 제정 시기 사건사고

1962년은 태권도경기화를 위하여 최초로 겨루기 경기규칙을 만들어 대한태수도협회가 대한체육회에 가맹하고 대구에서 개최된 제43회 전국체육대회에 시범종목으로 시작한 시기이다(양현석, 2005). 협회가 경기규칙을 만들기 이전에 겨루기 규칙은 각 관 중심으로 만들어져 수련이 이루어졌는데 약속 겨루기, 일보 겨루기(일수식 대련), 세 번 겨루기(삼수식 대련), 반약속 겨루기(이수식 복식법), 자유 겨루기(자유대련)로 수련하였으며, 협회의 창립과 함께 대한체육회 경기종목으로 가맹 목적을 위하여 경기규칙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 태권도는 다른 무예종목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첫째, 형, 둘째, 대련, 셋째, 격파에 중요성 및 발차기 기술을 발전시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련인 겨루기로 손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진 발의 사용을 권장하며 발전되게 되었다(양현석, 2019).

태권도 겨루기의 초창기의 경기규칙은 처음 스포츠 경기로 적용되는 단계로서 경기규정이 완벽하지 않고 격투기 경기의 기초적인 내용만으로 구성하

고 있었다. 처음 만들어진 경기규칙이다 보니 경기규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선수보호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라 기초적인 경기규칙 규정으로만 경기를 하다 선수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을 다음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태권도 선수 시합 중 절명〉

1963년 11월 6일 하오 3시쯤 이곳 군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일본원정선수환송 태수도 대회에서 군산 팀과 대전하던 공군 팀의 김태동(22세) 공군 삼삼구조대대 소속 상병 선수가 치명상을 입고 경기장에서 졸도, 병원으로 이송도중 절명했다. 이 때문에 이 대회는 하오 4시쯤 중지 되었다(조선일보, 1963. 11. 7).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는 무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일격필살의 정신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사망사고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무도적 성향이 강한 태권도의 성격에 맞추어 보호구 착용이 부정적인 견해를 받아 초창기에는 착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후 협회는 경기로서의 안전성을 고려하며 선수보호측면을 강조하는 스포츠로 발전하기 위하여 1968년에는 선수의 보호장비인 몸통호구는 대나무를 이용하여 만든 보호구가 의무화하는 경기규칙과 경기환경적인 측면도 변화가 있었다. 경기시간에 제한이 없이 상대방을 이길 때까지 경기가 이루어지던 경기방식에서 경기시간도 2분 3회전에 30초 휴식시간으로 증가되었다. 덧붙여 비교해 보아 1962년 이전에는 도장의 마루바닥이나 노천에서 경기를 하였다는 기록들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다(강원식, 이경명, 1999). 경기규정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주심과 부심 이외에도 배심원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복싱과 레슬링경기의 경기규칙을 가져와 배심원의 역할은 승패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배심원이라는 특수한 심판구성은 당시 처음 접하는 경기진행이다 보니 운영 및 판단미숙으로 잘못된 경기결과를 가져오는 주심과 부심이 많아 심판 경험이 풍부하고 단이 높은 배심원이 이를 조율하여 올바른 경기진행과 결과를 찾고자 하는 제도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후 배심원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절대적 권한을 가진 배심원의 영향력과 그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부심들의 심판의 자질에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강력한 결정력을 가진 배심원의 편파 판정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는 태권도경기장의 사건사고로 나타는 현상들이었다. (강원식 외, 1999: 118).

편파 판정과 애매한 경기결과로 인한 겨루기 경기에서의 사건사고는 매년 일어났다는 것을 신문기사로서 알 수 있었다. 1969년 장충체육관에서 폐막된 대통령기쟁탈 제4회 단체대항 태권도대회는 응원 나온 제1공수특전단 1백여 명의 두 차례에 걸친 난동이 일어난 대회였다.

그림1. 제46회 전국체전 당시 운동장에서 호구착용하고 경기하는 모습. 전북일보, 1965.10.4.-10(2014.6.11.)

이날 상오 11시 30분쯤 공수특전단응원단 1백여 명은 육군 A팀이 해병대B팀과의 준준결승에서 2대1호 패퇴하자 심판 판정이 엉터리라고 맥주병 의자 등을 경기장 안으로 마구 내던져 대회부위원장인 엄운규씨가 유리병에 얼굴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등 아수라장이 되어 경기가 1시간 30분이나 지연되었다. 공수단은 이날 하오 5시 제일 공수특전단팀이 같은 해병대 B팀에 연장 끝에 2대1로 패하자 스탠드에 있던 목제의자 20여개를 때려 부수며 경기장에 난입,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두드려 패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경기장 안은 일대 난장판을

이루었다. 특히 경기규칙이 제정되고 각종대회가 개최되던 중 각 팀에 명예를 걸고 있는 단체경기에서는 사건사고가 많이 나타났던 것이다(경향신문, 1969. 6. 9).

위의 사건으로 인해 1969년 6월 11일 태권도협회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난 8일 제 4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태권도단체대항전에서 난동을 부린 제1공수특전단팀에 대하여 3년간 대회출전을 금지토록 징계조치했다. 동 팀은 게임에 질 때 마다 1백여 응원단이 2차에 걸쳐 대회장에 내려와 기물을 파괴하는 등 수라장을 만들었다(조선일보, 1969. 6. 12). 이와 같은 강력한 징계를 협회에서 내려졌으나 애매한 경기규정상의 문제점이 원인이 되었던 부분이기에 이후에도 사건사고는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특히 고향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전국체육대회는 항상 경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濟州道태권도선수단들이 8일오후 5시40분부터 3시간등안 연좌농성을 벌였다.

전국체전 심판판정에 불만 농성 제주태권도선수단은 3시간 반이나 제주도 태권도선수단 29명은 8일 오후 5시40분부터 대회본부 측의 심판에 불만 서울운동장 배구장에서 3시간 반 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날 일반 고교부 밴텀급 준결승에서 제주의 김창환과 충북 김태규의 판정승을 선언하자 관중과 제주도임원들이 대회 본부 측에 항의 소동을 벌였다. 이에 대회본부측은 관중들을 퇴장시킨 후 해명해 주겠다고 말하고도 대회 임원들마저 자취를 감추자 항의할 길이 없어져 농성에 들어간 것으로 이로 인해 나머지 3게임이 중단되고 말았다(경향신문, 1970. 10. 9).

위의 내용을 보면 전국체육대회는 각 시·도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대회이다 보니 다른 대회보다 경기에 대한 향토애가 남달랐으며, 애매모호한 경기규칙 때문에도 판정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후 1973년 5월 28일 제 2차 경기규칙은 1960년대에 비해 세부사항이 증가 하였는데 개정된 경기규칙은 금지행위, 득점범위, 경기진행, 심판의 임무 등의

항목 이다. 득점 범위는 경기기술에 따라 정확히 명시하고 하고 있다. 발(발등, 앞축, 발날, 뒤축)로 얼굴, 옆구리, 아랫배, 명치 공격하는 것은 득점으로 인정한다. 주먹 공격은 완전한 자세로서 단일공격 만 인정되었으며, 선수들의 경기기술 향상에 따라 반칙행위도 변화하여 예전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게 되었는데 12개의 주의선언과 4개의 감점선언으로 세분화 하였다. 심판의 권한으로 주심은 경기의 주도권을 가지는 내용과 함께 득, 감점의 표출및 점수를 기재하는 등의 내용과 배심원이 주심과 부심의 판단오류에 대한 실수가 인정될 시 즉시 판정을 조정하고 주심 · 부심 교체를 경기, 심판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배심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었다.

〈남산공전태권도부 지도자 최영렬씨 제명〉

대한태권도협회는 28일 남산공전태권도부 최영렬씨를 제명시켰다. 최코치의 제명 이유는 지난 23일 11회 전국 중, 고, 대 대항단체태권도대회때 심판판정에 불복, 심판을 구타했기 때문이다. 한편 동 협회는 동대회에 부정선수를 출전시켰던 동산중학의 황대진 코치에 대해 6개월간 정권처분을 내렸다. 김운용회장은 앞으로 폭력을 쓰는 선수와 임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밝혔다(동아일보, 1973.6.29.).

또한 경기규칙의 변화에도 숙달되지 않은 심판진과 불확실한 판정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여 태권도 경기는 지속적인 사건사고로 이어져 위의 기사처럼 종종 심판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심판의 경기규칙적용미숙과 애매한 판정,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단체대항 대회에서는 사건사고는 더 많이 이루어졌다. 1973년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던 제 8회 대통령기 대회 해병대 사건이다.

일반부해병대 A팀과 육군 A팀의 대전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격돌 끝에 결국 득점위주의 육군이 박력과 투지로 맞선 해병대를 3:2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하였다. 여기에서 불만을 품은 해병대는 결국 관중과 타 선수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말았다. 옥에 티라고나 할까? 대통령기 쟁탈전이 규모나 기술이나 태권도인

의 정신수양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서 일시나마 난동으로 얼룩져 버린 것은 심히 유감이 된 일이며, 참가 선수의 정확한 경기규정 이해 및 정신적인 자세 심판원의 소신 있는 자기표현 군 태권도의 경기 참여 문제가 일반 태권도인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재고하여 기본적인 대책이 더욱 절실하였다(태권도지 제10호, 1973. 10. 14 : p28~29).

전국체전에서 열리는 종목 중 태권도만큼 사건사고가 많은 종목도 없었으며, 대회 경기를 보러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구경하러 간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사건사고가 없는 전국체전은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선수부상과 경기장 난입, 대회장 안에서의 각 시·도간에 난투극은 90년대까지 태권도경기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특히 조선일보에 태권도경기 불상사라는 제목의 기사는 선수가 첫 폭행하여 대회가 난장판이 된 사건사고 대회 기사이다.

14일 오후 테레사 여고 태권도 경기장에서 첫 폭행사고가 발생했다. 일반부 페더급의 청주 강회택과 전남 최기억이 동메달을 놓고 경기를 벌이는데 주심이 강의 판정승을 선언하자 최가 이에 불만, 강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 전남응원석에서도 100여명이 뛰어나와 합세했다. 강은 이들 중 1명으로부터 콜라병에 머리를 맞아 인근 병원에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다. 이사고로 태권도 경기가 약 1시간동안 중단되었다(조선일보, 1976. 10. 15).

위와 같이 초기단계 태권도 경기들은 명확하지 않은 경기규칙과 심판들의 경기운영미숙 때문에 난투극과 사건사고의 문제점들이 수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개선하여 경기규칙을 재정하는 시기이다. 1973년 제정된 경기규칙은 심판의 임무, 득점범위, 경기진행, 금지행위 등의 조항에서 처음 만들어진 규정에 비해 세부사항이 변경되었는데 경기규칙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처음 만들어진 규정을 수정·보완하였는데 득점부위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기술로 득점의 범위를 확대 명시하였으며, 주의 및 감점사항과 같은 금지행위도 선수들의 경기기술 향상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심판에 대하여서도 경험이 많은 배심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어 부심과 주심을 교체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 각종 국내 대회의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며 보다 다듬어진 규정이었다.

2. 경기규칙 조성시기 사건사고

태권도 경기규칙을 보완하고자 하는 태권도 협회는 1977년 경기규칙의 개정은 이전에 규정에 비하여 조금 더 세분화되었는데 단일 점수체계에서 경기운영에 대한 흥미와 관람의 재미가 있는 태권도 경기규칙을 추구하고자 차등점수제를 채택하여 경기에서 적용하였으나 1978년까지 적용하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단일득점체제로 변경하게 되었다. 또한 80년대는 국제대회와 올림픽을 준비하는 시기로 태권도 경기규칙 정착을 위한 노력은 이어졌으나 태권도 활성화로 선수층이 두터워지고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1981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6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사건사고는 계속 나타났다.

> 〈올림픽유치 경축무드 속에 첫 번째 맞은 제 62회 서울전국체전이 대회 의의와는 동떨어지게 운영무원칙, 시설미비, 판정시비에 따른 폭력사태로 얼룩져 과연 우리가 세계의 제전인 올림픽을 무난히 치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
>
> 전국체전은 규정에 맞는 시설에서 엄격하고도 공정한 운영을 통해 향토의 명예를 다투고 전 국민의 체위를 향상시키며 전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국가의 축제다. 그러나 이번 서울전국체전은 대회 3일째인 12일 현재 폭력사태만도 5건에 이르고 판정시비는 27개 종목중 9개 종목에서 일어났다. 12일 태권도가 열린 국기원에서는 판정에 불만을 품은 일부 시·도 임원이 음료수통을 경기장 바닥으로 집어던지는가 하면 몇몇 임원이 본부석 집기를 들어 팽개치는 등 2건의 시비가 있어 태권도종주국으로서 올림픽종목 채택을 주장하는 얼굴에 먹칠했다 (동아일보, 1981. 10. 13).

위의 사건으로 인해 태권도경기장에는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하여 삼엄한 경비 속에서 대회가 진행되어야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또한 88년 서울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태권도는 경기에 대한 불만으로 난투극이 벌어지는 대회들이 계속 이어졌다.

〈88년 서울올림픽 전략종목 태권도 잇단 판정불복 난동사태 웬 말인가 시합 때마다 연출되는 불상사 올해도 재연 불합리한 경기규칙, 파벌의식 등 큰 원인인 심판자질향상을 과학화를〉

1988년 서울올림픽 전략종목으로 기대가 큰 태권도경기가 온 국민의 관심과는 달리 전국체전에서 연이은 판정불복 및 난동사태가 벌어져 "저래가지고 어떻게 올림픽종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낳고 있다. 지난 12일 난동사태로 인해 13일부터 태권도경기장인 국기원에는 정복경찰이 출입구마다 삼엄한 경비를 폈다. 그런데도 태권도인 들은 "왜 신성한 경기장에 경찰들이 저토록 경비를 서야하는가?" 는 문제에 대해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볼 수가 없었다. 전국체전 태권도 경기에서 말썽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전주전국체전 때도 판정을 둘러싸고 각 시·도 임원들이 서로 치고받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심지어 어린선수들의 스포츠제전인 소년체전에서도 임원들이 경기장 밖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는 등 태권도계의 말썽은 한해도 거르는 일이 없다 (경향신문, 1981. 10. 14).

위에 기사에서 보듯이 80년대 태권도 경기장은 무법천지로서 판정에 대한 불만 때문에 매년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났다. 사건은 전부 판정에 대한 불만족이고 가해자는 선수부터 코치, 감독, 임원, 학부모까지 다양하였으며 심판폭행까지, 경기규칙의 적용미숙과 판정에 대한 불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경기장은 소총을 든 경찰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경기를 진행해야 했던 시절도 있었다.

〈태권도경기장서 불상사〉

제1호 주심 판정에 불만 폭행까지 발생 하는 전국소년체전이 개최되었던 1982년 5월 21일 충남여고 체육관에서 벌어진 태권도 중학부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품은 학부형이 경기장에 뛰어들어 행패를 부리고 주심이 폭행을

당해 경기가 1시간 동안이나 중단되는 소년체전 제1호 불상사가 생겼다. 이날 웰터급 준준결승에서 서울대표 박봉권이 전북의 진승구에게 판정패하자 박의 아버지가 경기장에 뛰어들어 물동이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경기장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어 벌어진 미들급 준준결승에서도 충북 공호권이 전남 이현태에게 4대 1로 판정승하자 전남선수단관계자로 보이는 한 청년이 코트에 뛰어들어 물주전자로 주심 김용록씨(인천소속)의 뒷머리를 내리쳤고 이와 함께 빈병과 의자 10여개가 날아들어 경기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건을 보고 받은 대전경찰서 소속기동대원 10여명이 M16소총으로 무장하고 출동, 사태는 1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압됐다. 한편 지난 6일 그라운드부조리와 폭력사태를 철저히 다스리겠다고 발표한 대한체육회는 진상조사에 나서 임원은 제명시키고 폭행에 가담한 민간인은 경찰에 형사 고발키로 했다 (경향신문, 1982. 5. 22).

동아일보(1985. 12. 19)자 신문에 의하면 당시 대한체육회는 경기장 질서를 강조하였으나 경기장 폭력의 대부분은 심판판정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으로 아직도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심판에 대한 불신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1985. 12. 19일 체육부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태권도등 14개 종목에서 32건의 경기장폭력 및 난동사건이 일어나 1백43명의 임원 선수 심판 등이 제명 자격정지등 징계를 당했고 10개 팀이 집단으로 중징계처분을 받았다. 경기장 폭력 및 난동사건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태권도로 태권도는 그 동안 전국체전에서 임원들이 관중석에서 콜라상자를 심판을 향해 던지는 등 5건의 경기장 폭력사건을 빚어 45명과 1개 팀이 징계를 당했다. 태권도 경기 중의 폭력난동사건은 올해(1985)에만 3건이나 발생했다. 위와 같은 태권도 폭력난동사건은 애매모호한 태권도 경기규칙과 파벌, 심판판정에 대한 미숙에서 들어난 사건들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1982. 2. 23, 1983. 10. 19, 1986. 6. 1, 1989. 10. 7) 4차례에 걸쳐 경기규정이 개정되었는데 규정된 경기규칙에는 총 8장 8개의 항목 3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이전 금지행위 중에서 주의조항이 없어지고 경고, 감점 조항으로 축소 변경되었다. 이는 이전 경기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비교하면 규칙 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으나 이시기에 새로운 규정으로 판정시비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일반호구와 전자호구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득점은 즉시채점 즉시 표출을 원칙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반 호구 사용 시 득점 채점은 키보드나 채점표에 의해 부심이 즉시 채점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된다. 또한 몸통부위에 전자호구를 착용하여 센서에 의한 자동채점 되고, 얼굴부위 득점은 부심에 의해 키보드로 점수를 표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또한 경기규칙에 이의가 있을 시 소청제도를 도입하여 경기운영에 대하여 코치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청제도의 도입은 심판의 오심과 착오에 의한 피해를 없애고자 도입하게 되었다.

경기규칙 조성기의 경기규칙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심의 임무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기존 경기에서는 주심은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고·감점사항과 채점, 배심의 요청에 의해 의견을 표출하던 것을 경기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득점을 채점하지 않는 대신 경기결과가 동점 또는 득점이 없을시 우세판정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결정권을 부여하여 이는 승패에 많은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보여 진다. 우세승의 등장은 과거에 체중과 추첨으로 무승부에 대한 판정여부를 정하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보안한 것은 판정시비에 대한 논란과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나 개정이후에도 애매한 우세판정에 의한 논란과 사건사고는 계속되었다.

3. 경기규칙 정착시기 사건사고

태권도는 국제대회(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1985, 1989년 서울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와 대학에 태권도학과(대한유도대학, 경희대학교)가 개설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성장·발전 하지만 국제대회 규정에 맞는 경기규정은 만들어지지 않아 언론매체로부터 지적을 받는다. 내부적인 필요성보다는 국제 경기 화에 따른 사회적 관심 속에서 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추장 바른 빵〉 먹이기 세계태권도
세계태권도 한국만 유리하게 체급설정, 체구, 큰 서양인 불리, 오륜 채택지장?

66년 6월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장창선은 결승에서 일본선수와 비겨 몸무게를 달아 우승했다. 그때 장선수는 5백g 가벼운 덕에 한국 레슬링 사에 빛날 금메달을 획득했다. 태권도 유도 복싱 레슬링 등 체급별경기에서 몸무게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한국이 종주국인 태권도는 5월 로마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IOC) 총회에서 88년 올림픽(시범)종목으로서 채택 여부가 판가름 난다. 그러나 태권도가 경량급에서 한국선수에게만 유리하게 체급을 매겨놓아 세계태권도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태권도는 핀급에서 웰터급까지 경량 6개 체급이 모두 4kg의 차이를 두고 있다. 라이트미들급과 미들급 2체급은 5kg씩 이다. 라이트헤비급은 미들급보다 겨우 6kg이 많다. 이 같은 체급 분류는 동양인 특히 한국선수에게 유리하게 경량급을 세분화한 것, 따라서 국제대회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독점 하다시피 한 것은 태권도 종주국이라는 데에도 있지만 이런 체급 세분화에서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동아일보, 1982. 3. 17).

위의 내용을 보면 국제대회 규격에 맞는 체급에 대한 필요성을 언론에서 먼저 제시하게 되는데 이에 협회는 작은 변화는 있으나 올림픽 체급으로 만들어지기 까지는 10년이 지나게 된다. 또한 사회적 분위기로서 복싱경기 중 사망하는 사고들이 나타나다보니 태권도 경기규정도 국제화를 위한 변화로 선수보호측면을 고려한 안전을 위한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다.

〈태권도선수도 헤드기어 쓰고 경기 한다〉

86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으로 확정되고 88서울올림픽 때는 시범종목으로 채택 될 것이 유력한 태권도는 빈발하는 복싱계의 링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빠르면 올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 때부터 헤드기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태권도용 헤드기어 개발과 룰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권도가 헤드기어 사용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 「복싱을 올림픽에서 제외시키자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이니 태권도도 올림픽에 채택되려면 위험도를 줄이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충고가 있고부터, 미국에서는 태권도를 복싱보다 더 위험한 운동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경기도중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다. 황춘성 태권도협회전문이사는 「지난22일에 발생한 복싱선수 사망사건은 직접 펀치에 맞아 일어났다기 보다는 쓰러지면서 캔버스에 뒤통수를 부딪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태권도는 주먹으로 얼

굴을 때릴 수 없는 대신 더 파괴력이 큰 발로 공격할 수 있는데다 마룻바닥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뇌진탕의 위험이 더 크다」면서 현재 협회와 세계연맹에서 개발하고 있는 헤드기어는 복싱과 달리 뒤통수부분이 크게 보완된 형태의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경향신문, 1985. 4. 27).

태권도경기는 무도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벗어난 스포츠로서 경기 화에 초점이 맞춰 필요에 의해 경기규칙이 변화되어졌다고 보인다. 하지만 국내외 각종대회들의 신설은 심판의 공정성과 명확성, 투명성 없는 경기규칙은 대회의 몸집만 커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다 보니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국가대표선발, 전국대회 등에 대한 뜨거운 열기는 경쟁과열로 나타나 항상 태권도경기장에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어 선수, 지도자, 학부모 , 시·도지부 관계자 등 태권도경기에 관련된 사람은 누구나 불신의 마음을 지니고 경기를 지켜보다보니 이는 심판판정의 불신이 경기장 난동으로 나타났던 현상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태권도 경기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목격될 수 있는 일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점은 태권도가 세계적인 무도스포츠라는 과장된 허울만 지녔을 뿐 내실 없는 스포츠라는 단면을 보여주는 시기였다. 하지만 태권도도 올림픽 정식종목 입성이라는 큰 숙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 경기규칙의 변화의 노력은 계속된다.

태권도협회는 경기규칙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1987년 1월 제14차 개정은 국내경기에서 국제대회 출전 자격을 두고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조치로 심판판정의 공정성과 명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인의 개정으로 경기용구, 용어, 기술의 정비 및 개발이 절실하다. 먼저 경기용구의 표준규정을 하루빨리 과학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체형과 체급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는 표준규격을 정하여 용품생산업체에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경기용어의 통일성과 경기규정의 미비로 나타난 심판판정에의 불신현상은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채택에 자칫 아킬레스건과 같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황춘성, 1988: 65).

국내대회의 문제점들의 보완과 필요에 의해 규정이 변화된 것이 아닌 88년

서울올림픽과 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의 대회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안하여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입성하기 위해 경기규칙으로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

〈태권도 판정시비 심판 영구제명〉

대한태권도협회는 19일 판정시비로 말썽을 빚은 심판을 영구제명하고 감독관을 3년 동안 자격정지 처분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질서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6시10분께 제천 태권도경기장에서 벌어진 일반부 핀급 준준경승전에서 강원도 서재욱 선수와 충남 황창훈선수의 대전결과에 대한 심판판정이 잘못됐음을 인정, 소청을 낸 충남 황창훈선수의 승리를 선언하고 이경기의 심판을 본 유세종(37)씨를 영구제명, 감독관 조동(51)씨에게 3년 동안 자격정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편 소청심의 결과 판정이 뒤집혀지자, 강원도 태권도협회 선수와 임원 등 32명이 경기장에서 농성을 벌여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경기가 2시간 이상 늦춰졌다(한겨레, 1990. 10. 20).

경기규정적인 부분의 큰 변화는 점수즉시표출, 주심의 점수인정 폐지, 유효득점 부위 등이다. 이와 같은 논의 들은 태권도 경기화의 궁극적 형태인 올림픽 종목 채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규정을 적용하는 과도기에서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심판교육과 자질문제는 항상 숙제로 남으며, 경기에 영향을 미쳐 사건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제75회 전국체전 결산 기록 “평년작” 진행 “성공작”〉

태권도 인기 속 펼쳐 특히 사고 다발종목이던 태권도가 올림픽종목 채택을 계기로 자체 반성과 교육을 통해 단 한건의 사고 없이 많은 관중들의 인기 속에 펼쳐진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조선일보, 1994. 11. 3).

위와 같이 90년대에도 태권도 경기장에서의 사건사고는 계속 이어졌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점점 보완되어 사고 다발종목이라는 오명에서 사고가 없는 전국체전은 이슈가 되기도 하여 신문기사화 되게 된 것이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겨루기 경기시의 문제 및 득,감점 및 판정에 대한 문제

와 타격부위와 점수에 대한 애매한 문제로 판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으며 관람하는 관중입장에서의 경기규칙이 복잡하며 지루한 경기가 많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대한태권도협회와 세계태권도 연맹은 인식하며 2001년 새로운 경기규칙 안을 만들었다. 규정변화의 큰 화두는 득점제도 면에서 단일득점제도에서 차등점수제로의 규정변화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규칙의 수정보완으로 차등점수제, 영상 판독 등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영상판독, 소청 심사 등으로 대회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심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여 영구제명, 자격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로 규정을 변경하였다.

이후 올림픽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며 명확한 판정을 위한 전자호구도입과 영상판독, 강력한 징계 등이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태권도 경기장 분위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승부조작에 의한 판정에 대한 불만족과 심판의 자질문제는 편파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부모가 자살로 이어지는 사회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태권도 편파판정' 논란이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온라인에는 '태권도 편파판정 영상'이라는 제목의 경기 영상이 올라왔다. 한 태권도장 관장이 태권도 선수인 아들이 경기에서 부당한 판정을 받았다고 호소하면서 자살한 뒤, 관련 동영상이 유포된 것이다. 그는 유서에서 "전국체전 서울 선발 3회전 핀급 결승전 3회전 종료 50초를 남기고 아들과 상대방의 점수 차이가 5대 1로 벌어지자 경고를 날리기 시작했다"면서 "50초 동안 경고 7개를 받고 경고패한 우리 아들은 태권도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고 편파판정을 주장했다. 당시 공개된 경기 내용에는 심판이 한쪽에 과도하게 경고장을 남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후 5대 1로 승리하던 쪽이 순식간에 7대 8로 역전패 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숨만 쉬어도 경고였을 듯, 어이가 없다", "심판 본인의 감정으로 심판을 봤나?", "문제의 심판이 참여한 경기는 모조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 동영상을 보고 자식 태권도 시킬 부모는 거의 없을 듯", "누군가는 죽어야 움직이는 시스템이 싫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태권도 관장인 전 모 씨(47)는 28일 낮 12시 20분께 충남 예산군 수철리 한 사찰입구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

적과 '태권도 편파판정'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됐다. 이번 논란에 대해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동아일보, 2013, 5. 30).

경기규칙 정착기의 사건사고에 대한 의견을 양통일(2006)은 태권도 경기가 스포츠로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올림픽 종목에서의 퇴출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으며, 이것은 태권도가 무도로서의 가치가 퇴색되고, 승리지상주의를 우선으로 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으며, 협회는 이러한 승리 지상 주의적 사고방식의 자연적, 필연적 사건사고는 규정 변화의 필요성 및 안전에 대한 규정을 지향하며, 개념별, 기능별, 행위별로 규정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겨루기경기규칙은 지금까지 27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진행형으로 수정중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대회들에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더욱 완벽한 경기규칙을 만드는 것은 사건사고가 없는 미래가 있는 올림픽스포츠로서의 태권도가 존속되는 길이라 생각된다.

Ⅲ. 결 론

광복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제정기, 조성기, 정착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태권도 경기규칙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무도스포츠로서 60여 년의 세월동안 태권도가 일관성 있게 걸어온 경기 화라는 길에 의미가 있으며 올림픽스포츠로 유지 및 발전하기 위한 경기규칙 개정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경기규칙의 개정은 역사의 사건사고의 흐름 속에서 개정 변화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초창기 경기규칙은 무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일격필살의 정신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사망사고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태권도협회는 경기로서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수보호측면을 강

조하는 스포츠로 발전하기 위해 1968년에는 선수의 몸통호구착용(대나무)을 이용하여 만든 보호구가 의무화하는 경기규칙과 경기환경적인 측면도 변화가 있었다.

둘째, 90년대까지 태권도 경기장은 무법천지로서 판정에 대한 불만 때문에 매년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났다. 사건은 전부 판정에 대한 불만이고 가해자는 선수부터 코치, 감독, 임원, 학부모까지 다양하였으며 심판폭행까지, 경기규칙의 적용미숙과 판정에 대한 불만족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경기장은 소총을 든 경찰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경기를 진행해야 했던 시절도 있었다.

셋째, 경기에서의 사건사고는 태권도가 무도로서의 가치가 퇴색되고, 승리지상주의를 우선으로 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협회는 이러한 승리 지상 주의적 사고방식과 자연적, 필연적 사건사고에 변화의 필요성 및 안전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기 위하여 개념별, 기능별, 행위별로 규정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겨루기경기규칙은 지금까지 27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진행형으로 수정・보완 중이다.

이러한 태권도의 발전은 태권도가 걸어온 길지 않은 시간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여전히 도처에 남아 있다. 2002년부터 도입한 차등점수제, 경기장 규격변경과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의도한 만큼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여러 가지 요소로 경기의 흥미를 돋우려는 노력을 했지만 관객의 반응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세계인이 즐기는 태권도 경기가 되기 위해서는 태권도의 경기방식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나 경기를 보면서 승패를 판정할 수 있도록 경기규정의 모호하고 난해한 요소를 과감하게 명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절대적 기계장치에 의존하지 않는 심판원의 합리적이며 도덕적 사명를 가지고 투명한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무도스포츠로의 발전은 태권도 인에게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참고문헌

김기환, 이정필, 김호성, 김영주, 정희정, 오재근5(2007). 태권도 경기규칙 개정 전·후 상해 경향의 임상적 비교. **한국스포츠리서치, 18**(2)

강원식, 이경명(1999). **태권도현대사.** 보경문화사

강성철, 류병관, 윤상화, 진중의(1997). 태권도 경기규칙 개정에 대한 연구.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8**(2)

강충웅(1985). **태권도경기 규칙개선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권천달, 박수을, 이선장, 박남환(2005). 태권도 경기규칙 개선요인 분석. **한국스포츠리서치. 16**(4)

경향신문. 1969. 6. 9.

경향신문. 1970. 10. 9.

경향신문. 1981. 10. 14.

경향신문. 1982. 5. 22.

경향신문. 1985. 4. 27.

계간태권도(1973). 제10호.

계간태권도(1982). 제40호.

계간태권도(1988). 제67호.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 겨루기 경기규칙

제정 : 1973.06.28.

개정 : 1977.10.01.

개정 : 1982.02.23.

개정 : 1983.10.19.

개정 : 1986.06.01.

개정 : 1989.10.07.

개정 : 1991.10.28.
개정 : 1997.11.18.
개정 : 2001.10.31.
개정 : 2003.02.14.
개정 : 2003.11.25.
개정 : 2005.11.07.
개정 : 2008.01.15.
개정 : 2009.01.14.
개정 : 2010.01.19.
개정 : 2011.01.13.
개정 : 2012.01.30.
개정 : 2013.01.11.
개정 : 2014.01.14.
개정 : 2015.01.16.
개정 : 2016.01.18.
개정 : 2017.01.09.
개정 : 2017.12.14.
개정 : 2018.12.14.
개정 : 2019.01.18.
개정 : 2020.01.14
동아일보. 1973. 6. 29.
동아일보. 1981. 10. 13.
동아일보. 1982. 3. 17.
동아일보. 1985. 12. 19.
동아일보. 2013, 5. 30.
신창화(1993). **한국의 문화적 수단으로서 태권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양현석(2005). **광복 후 태권도세계화 변천과정(1945~2005)**.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양현석(2019). 최홍희를 통해 본 태권도 태동(胎動)에 대한 연구, **무예학회지 14**(2), 1-21.

양통일(2007). **태권도품새지도에 관한 지도철학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대학원.

조선일보. 1963. 11. 7.

조선일보. 1969. 6. 12.

조선일보. 1976. 10. 15.

조선일보. 1994. 11. 3.

전북일보. 2014. 6. 11

정찬모, 권혁수, 전만중(2000). 경기규정 변천사를 통해 본 태권도 경기규정의 개선방안. **한국체육사회학회지, 6,** 27-41.

최종삼(1997). **무도 경기규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한겨레신문, 1990. 10. 20.

한창효(2000). **태권도 경기규칙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황건수(2001). **88올림픽 전·후 유도 태권도 검도의 스포츠화과정에 관한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ABSTRACT

The history of the rules of taekwondo competition as seen from the incident

Yang, Hyun-Suk(Sunmoon Univ.) · Yoon, Jung-Wook(Woosuk Univ.) ·
Bing, Won-Chul(Baekseok Univ.)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revisions and changes in the trend of the history of Taekwondo competition rules by dividing the period from the period after liberation to the present by the period of establishment, creation and settlement.

First, since the early competition rules emphasized the martial arts aspect the spirit of mortal blows, protective gears have become mandatory in order to prevent fatal accidents.

Second, until the 1990s, all the accidents were about inadequate application of game rules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referees' judgements and they led to referee assaults. The perpetrators varied including players, coaches, head coaches, presidents, and parents.

Third, incidents and accidents pursued the necessity of change in regulations and they led to efforts into bringing changes in regulations by concept, function, and behavior. The sparring rules have been reivised 27 times so far and are still being revised.

Key words: Taekwondo competition rules, History of Taekwondo, Dissatisfaction with the judgment, Accidento

논문투고일 : 2021.03.31.
심 사 일 : 2021.04.22.
심사완료일 : 2021.04.30.